

평양영화축전의 성립과 그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승대**. 전영선***. 김용현****

요약

이 연구는 ‘평양영화축전’의 성립 배경과 대내외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평양영화축전은 1987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이다. 평양영화축전은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이 친선영화제를 축제 형식으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영화제는 2006년 제10차부터 ‘평양국제영화축전’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에도 개최되었다.

북한이 처음 영화제 개최를 주도하게 된 것은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친선 강화가 주목적이었다. 한편, 김정일은 과거부터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시기를 체제 정당성의 근간으로 삼았다. 현지지도와 각종 지원을 통해 이때 창작된 문화예술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영화제를 통해 후계자 김정일은 국제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아울러 김일성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영화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평양영화축전은 북한 지도자의 정치적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다.

주제어: 북한, 평양영화축전, 제3세계, 비동맹국가, 김일성, 김정일

* 이 논문은 2014년도 국가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남북협력사업 기초조사 연구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동국대학교-서울 북한학과 박사수료, hsd@dongguk.edu

*** 공동저자: 건국대학교-서울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multifriend@naver.com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북한학과 부교수, unikor21@dongguk.edu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평양영화축전’의 성립 배경과 대내외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다. 평양영화축전은 1987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북한 유일의 국제적인 영화제이다. 이 영화제는 1987년 제1회 대회를 거쳐 1990년 이후에는 짝수 해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¹⁾ 영화를 통한 비동맹국가와의 친선을 도모하는 대회로 시작된 1987년 행사의 공식 명칭은 ‘제1차 뽀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²⁾이었다.

평양영화축전은 비동맹 국가들이 서방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제였다. 동서 냉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던 1980년대 중반 비동맹국가의 친선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3년 평양에서 열린 ‘비동맹국가의 교육·문화장관 회의’에서 영화제 개최가 합의된 데 이어서 1985년 ‘제8차 비동맹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평양 개최가 결정되었다. 김일성이 1987년 9월 1일 평양영화축전에 참가한 대표와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보낸 축하문(제1차 뽀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 참가자들에게)에서 강조한 것은 세 가지였다. 하나는 교류와 친선에 대한 당부였다. 평양영화축전이 세계 여러 나라 영화인들이 영화예술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고, 교류와 협조를 통해 영화 발전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영화의 기능이였다. 김일성은 영화가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다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인간의 보람찬 투쟁과 아름다운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하며,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에 관

1) 평양영화축전은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만큼 비중이 높은 대회로 김일성, 김정일 통치기에 이어 김정은 집권기에도 계속되고 있다.

2) 이하 북한문헌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원문 그대로 따른다.

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는 국제적 연대였다.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이 영화 등을 이용한 문화적 침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동맹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라고 당부하였다. 김일성의 축하문을 통해 평양영화축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2000년대 들어서면 영화제 곳곳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2000년에는 일본에 문호를 열고 6편의 영화를 초청하였다.³⁾ ‘비동맹’과 ‘제3세계’를 의미하는 ‘빨려볼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이라는 영화제의 수식은 2004년 제9회 대회까지 사용하였다. 2006년 영화제부터는 ‘국제’라는 용어를 추가해 ‘평양국제영화축전’이라고 명명했다. 기존 ‘햇불 금상, 은상, 동상’이라는 북한식 수상 명칭을 ‘최우수영화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2006년 10회 영화제에서 ‘장편예술영화’ 부문의 최우수상은 독일 영화가 차지했다. 그 외 연출상, 문학상, 남녀배우 연기상 등 장편예술영화의 주요 부문을 유럽영화가 가져갔다. 명칭 변화와 더불어 영화제 성격이 이전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기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위주의 대회에서 유럽 또는 자본주의 국가를 아우르는 영화제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평양영화축전은 단순히 친선목적을 떠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가하면서 체제 선전과 함께 영화 마케팅 요소들을 강화하고 있다. 원래 국제영화제는 대외적인 목적과 함께 대내적인 목적으로도 진행된다. 대외적으로는 자국 영화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하며, 문화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정진욱 2014, 2). 대내적으로 일반 국민은 쉽게 접하기 힘든 영화를 감상할 기회를 가진다. 오늘날 영화제는 문화산업의 영역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영화제의 개최가 영화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개별 국가의

3) 씨네2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2549(검색일: 2015.8.14).

위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북한이 평양영화축전을 개최하는 주요 목적은 체제 선전에 있다. 영화산업의 기반이 열악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북한 영화계가 영화제를 통해서 국제영화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 몇 회 동안은 북한 영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쟁부문의 상을 휩쓸었다. 제4회 대회까지 북한 작품은 대상인 ‘햇불상’ 2회, 최우수여우상 4회를 수상하였다. 하지만 대회를 거듭할수록 북한 영화는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평양에서 개최하는 프리미엄(premium)을 고려하더라도 영화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평양영화축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영화축전’이라는 형식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지만 영화제는 영화제 고유의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은 영화제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영화제를 통한 국제적 연대는 기타의 방법, 즉 정치적 행위나 경제적 행위보다 강도가 약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 연구가 기존의 정치, 군사, 경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상대적으로 영화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영화는 19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장르이다. 김정일 체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발전하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평양영화축전은 북한의 문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평양영화축전은 영화를 통한 비동맹국가와의 국제적 친선 도모, 북한 체제의 안정성 과시, 문화에 대한 북한 주민 욕구 해소 등의 다목적 카드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평양영화축전의 개최 배경에서부터 영화제가 갖는 대내외적인 의미

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평양영화축전의 성립 배경

1. 제3세계 비동맹국가⁴⁾의 등장과 세력화

19세기와 20세기 서구 열강은 제국주의 시대를 확장하고 개척하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그 세력을 넓혔다.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진출은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황병덕 외 2003, 178).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신생독립국이 출현했다. 이들 개별 나라는 식민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체제를 유지하면서 진영 간의 대결상태가 팽배해 있는 시기였다.

당시 동서 진영 간의 틈바구니에서 한쪽의 편을 들거나 독립국이 되었던 그때 일부 나라는 새로운 움직임에 모색했다. 식민지의 트라우마(truma), 공포, 두려움은 제3세계, 비동맹, 중립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1954년 콜롬보에서의 5개국 모임,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4) 김계동(2002)은 ‘비동맹’과 ‘제3세계’가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고 있다며, “비동맹(non-alignment)은 동서 냉전 구조 속에서 제3세계의 독립과 생존을 목적으로 태동한 정치적 개념으로 제3국들 간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비개입 태도를 취하려는 중립노선 정책”을 말하며, “제3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제1세계), 소련·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제2세계)에 속하지 않은 저개발된 국가”라고 설명하고 있다(김계동 2002, 298). 북한은 평양영화축전을 언급하면서 ‘빨리불가답’, 즉, ‘비동맹’이라는 표현을 영화제를 수식하는 타이틀(title)로 사용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비동맹’과 ‘제3세계’ 개념에 경계를 두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칭해 ‘제3세계 비동맹국가’로 하고자 한다. 김계동 역시 ‘비동맹’과 ‘제3세계’ 개념의 혼동을 지적하면서도 ‘제3세계 비동맹국가’, ‘제3세계 비동맹외교’ 등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반동에서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제3세계가 또 다른 세력화로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⁵⁾ 1955년 반동회의에서는 평화5원칙과 반동10원칙을 채택하였고, 비동맹이란 새로운 정치강령을 제창하면서 동서 어느 진영과도 동맹 맺기를 거부했다.

북한의 과거 냉전 시기 외교는 사회주의권 및 제3세계 비동맹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에도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관계는 우호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제3세계 비동맹국가에 대해 본격적인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다(김계동 2002, 298). 이러한 계기가 된 요인은 “소련의 평화공존정책으로의 전환과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의 등장”(정규섭 1997, 43)이다. 북한은 일찌감치 1956년 4월 당 외곽단체로 대외문화연락위원회를 만들어 제3세계 비동맹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에 나섰다. 김일성은 1957년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역량이 식민지 및 예속국가 인민들의 해방에 기여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7억 이상의 인민들이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건설”(김일성 1981, 396)하였다고 하면서,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과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협조와 연대를 더욱 강화”(김일성 1981, 399)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제3세계 비동맹국가의 세력 확장에 발맞춰 대외관계에 변화를 추구했다.

5) 이 회의의 시대적 배경은 아시아지역에서는 한반도와 인지반도(印支半島)에서 휴전이 성립된 직후, 미국이 주도하여 1964년 9월 동남아조약기구(SEATO)를 만들고, 중동지역에서는 중동조약기구를 결성하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였다. 즉, 반동회의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제국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하는 시기에 열렸으나 중공이나 소련으로서는 미국의 봉쇄정책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된 셈이다. 반동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반식민주의, 민족자결주의, 세계평화주의,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 간의 연대와 그 문화, 사회, 경제상의 협력축진을 토의했고 ‘평화5원칙’을 토대로 한 반동 10원칙을 채택하였다(이기중 1997, 189).

북한의 비동맹 외교정책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보면 1960년대 들어 북한은 본격적으로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들이 유엔(UN)에 대거 가입하고 1960년에 열린 제15차 유엔 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의 동시 초청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른바 반제·반식민 해방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제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1966년 8월에는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을 선언하면서 다변 외교에 치중하였다(통일부 2003, 171). 북한의 다변 외교로의 외교 전략은 당시 중국과 소련의 갈등과도 관련이 있었다. 중국, 소련과의 긴장된 삼각관계에서 북한은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

또한, 1960년대에 전개된 중국과 소련의 평화전략이 북한의 외교정책 노선을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의 전쟁가피론과 평화공존론이 현실화되고, 둘째,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프랑스와 중국이 각 진영을 이탈하면서 다원화 경향이 생겼으며, 셋째, 앞서 언급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생독립국이 나오면서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졌고, 중국이 이들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이기중 1997, 192-193).

북한은 특히 1970년대 들어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1972년을 ‘외교의 해’로 정하고 세계 각국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활동을 강화하였다(통일부 2003, 171). 1970년대 들어 몰디브(1970.6.14.), 스리랑카(1970.7.15.), 시에라리온(1971.10.14.), 카메룬(1972.3.3.), 르완다(1972.4.22.), 우간다(1972.8.2.), 세네갈(1972.9.8.), 파키스탄(1972.11.9.), 콩고민주공화국(1972.12.15.), 토고(1973.1.31.), 베냉(1973.2.5.), 감비아(1973.3.2.), 이란(1973.4.15.), 말레이시아(1973.6.30.), 모리셔스(1973.3.16.), 방글라데시(1973.12.9), 인도(1973.12.10), 라이베리아

(1973.12.20.), 아프가니스탄(1973.12.26.), 리비아(1974.1.23.), 가봉(1974.1.29.), 기니비사우(1974.3.16.), 네팔(1974.5.15.), 가이아나(1974.5.18.), 라오스(1974.6.24.), 요르단(1974.6.30.), 니제르(1974.9.6.), 자메이카(1974.10.9.), 베네수엘라(1974.10.28.), 보츠와나(1974.11.27.), 태국(1975.5.8), 케냐(1975.5.12.), 에티오피아(1975.6.5.), 모잠비크(1975.6.25.), 튀니지(1975.7.16.), 싱가포르(1975.11.8.), 앙골라(1975.11.16.), 나이지리아(1976.5.25.), 바베이도스(1977.12.5.) 등과 외교관계를 맺는다(통일부 2003, 174-181).

북한이 이 시기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것은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 상정 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였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관계에 소극적이었던 남한이 외교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유엔에서 각 국가는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다.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체제경쟁의 우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유엔에서의 표 대결이라고 했을 때, 제3세계 비동맹국은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였다. 북한은 유엔 또는 유엔 산하 전문·독립기구 가입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1973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 시작으로, 1974년에는 만국우편연합(UPU),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원자력기구(IAEA), 1975년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기상기구(WMO), 1977년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 가입하였다(외교부 2014, 372).

북한은 이와 같은 노력으로 1975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국가 외무장관회의’에서 비동맹 회의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반면, 남한의 가입은 거부되었다. 북한은 비동맹 회의의 회원국이 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내세우고 관철하고자 했다.

2. 북한 영화의 대외접촉 시도와 영화제 개최

북한은 1975년 회원국이 된 이후에는 그들이 원하는 데로 외교성을 올리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러 환경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이기중 1997, 203-205). 먼저,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에서는 제3세계 비동맹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데탕트(detente) 체제에서는 그 존재기반이 약했다. 이데올로기(ideology) 문제보다 실리 추구가 더 우선시 되는 환경에서 북한의 외교활동은 제약을 받았다. 두 번째로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감소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북한의 외교 범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중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협조관계 유지에 북한이 ‘자주적인 외교’를 행사하는 데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 제3세계 비동맹권의 분열을 들 수 있는데, 국가의 수가 팽창하면서 각국의 관심 영역은 다양해졌다. 초기의 정치이념보다 자국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다. 네 번째로 남한의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외교 강화를 들 수 있다. 남한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실리 노선을 추구하는 이들 나라와 외교관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북한은 1976년 8월 16일 판문점에서 벌어진 도끼만행사건,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을 벌이면서 국제적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친선 강화를 통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후계문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김일성을 ‘민족 지도자’로 국제적 이미지를 쌓고자 한 시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인정받으면서 북한은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친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별인다.⁶⁾ 여러 분야 중 무엇보다 문화 분야, 특히 영화에 초점을 맞춰 이들 나라와의 친선 강화에 주목하고자 했다. 영화는 김정일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도 속에서 발전한 예술 장르로 김정일이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영화제 개최가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내외부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한 듯하다.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통치 아래 ‘민족문화와 생활풍습’을 빼앗는 ‘민족문화 말살정책’을 벌여 현대문명과 괴리시켜 놓았다고 주장한다(로동신문 1983/09/24, 1). 그러므로 각 제3세계 비동맹 국가가 그동안 이룩한 문화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이 개별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로동신문 1983/09/24, 1). 정치, 경제의 협력과 더불어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었다.

특히, “영화는 종합예술 장르로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예술적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있고,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모든 예술장르의 활용”(전영선 2004a, 305)이 가능하다. 한 번 제작된 영화는 “복제를 통해 여러 편을 동시에 만들어 상용할 수 있으며, 영사막과 환등기만 있으면 이동이 쉬운 장점”(전영선 2004a, 306)이 있다. 북한이 여러 분야 중에서도 영화제 유치에 공을 들인 것은 ‘영화’가 갖고 있는 파급력 때문이다. 김정일은 “영화예술은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예술로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 된다”(로동신문 1987/09/01, 4)고 하였다. 이러한 영화는 제3세계 비동맹국가의 민족적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주고, 국가 간 문화 협력을 극대화하는 장르이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이 같은 이

6) 북한은 1981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식량 및 농업 증산에 관한 뽀력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토론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유에서 영화제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1980년대 이전까지 북한 영화의 대외적 노력은 미비했다. 1980년대 들어 제한적으로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외화수입이 인도·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되면서, 북한 영화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였다. 즉, 기존의 소련, 중국, 동유럽에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그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박명진 1990, 367). 합영법의 채택 이후 소련, 중국을 포함한 프랑스 등의 나라와도 합작영화를 추진⁷⁾하기 시작했고, 주로 사회주의권 국가에서 개최하는 국제영화제만 참가하던 정책을 바꿔 비사회주의 국가(런던·칸 영화제 등)의 참가도 시도하였다(박명진 1990, 367-368).

제3세계 비동맹국가의 문화 분야 협력 증대, 특히 영화제 유치를 위한 북한의 노력은 1980년대 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1983년 3월,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린 제7차 비동맹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원칙 지지를 재확인했다(로동신문 1983/03/16, 4). 이 회담에서 북한은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의 교육 및 문화장관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할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뽐럭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의 경제협조에 관한 행동강령에서 수뇌자회의는 제1차뽐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부장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이 회의를 1983년에 평양에서 소집 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를 환영하였다.”(로동신문 1983/03/16, 4)

7) 1980년대 들어 외국과의 합작영화 추진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소련과는 최초로 1985년에 <영원한 전우>를 합작한 데 이어, 1988년에는 2차 합작영화인 <봄부터 여름까지>를 제작하였다. 실제 성사 여부와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중국,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중개로 해서 일본 등과도 합작을 추진하고, 일부 서방 국가와도 합작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명진 1990, 372).

‘제1차 뽀력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부장 회의’는 영화제 개최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북한은 영화제 유치의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회의의 개최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제1차 비동맹 교육·문화장관 회의는 1983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72개 나라와 19개 국제기구에서 온 91개의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로동신문 1983/09/25, 1).

1983년 9월 이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교육문화분야에서 뽀력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사이의 협조를 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한다. 크게 보면 교육 분야와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로 나뉘며 총 2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문화 분야의 협조는 14개 항목으로, 1) 문화정책의 작성과 실시, 2) 문화의 민주화, 3) 민족문화와 문화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4)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온갖 유해로운 문화의 영향력 방지, 5) 문화재의 본국에로의 반환, 6)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와 영구보존, 7) 문학예술창작, 8) 문화일꾼 양성, 9) 문화와 통신, 10) 문화발전을 위한 기술적 토대의 강화, 문화공업의 창설, 11) 문화와 환경, 12) 민족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13) 국제적 협조, 14) 협조사업에 대한 조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평양영화축전 개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7) 문학예술 창작’이다. 제7항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민대중은 문학예술의 진정한 창조자이며 향유자이다. 뽀력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은 광범한 대중적문화활동을 전문적인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옹계 배합시킴으로써 문학예술을 자기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정서, 민족적 특성과 나라의 발전의 요구에 맞게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뽀력불가담 및 발전도상 나라들은 문학작품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에서 긴밀히 협조한다. 음악, 무용,

미술 등 예술 창작 및 보급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한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인민대중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문화를 풍부히 하는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기여를 하고있는 예술인들의 창작적재능을 꽃피우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지어주어야 한다. 영화창작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한다. 평양에서 2~3년을 주기로 하는 뽀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영화축전을 1985년 또는 1986년부터 조직한다. 1986년 또는 1987년에 평양에서 뽀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제1차예술축전을 조직할것을 권고한다. 창작단체들과 작가, 예술인들사이의 교류와 경험교환을 장려한다. 뽀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이 1985년 국제청년들의 해에 즈음하여 매개 나라에서 조직되게 될 행사들에 각별한 관심을 돌릴 것을 권고한다. 조절국성원들이 1985년에 국제청년들의 해를 경축하기 위한 뽀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 청년들의 회합을 조직하기 위한 가능성을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도서들의 발행을 장려하며 아동도서 및 아동작품국제시장을 개최한다.”(로동신문 1983/09/29, 3. 밑줄, 강조는 인용자)

제1차 비동맹 교육·문화장관 회의에서 영화제 개최에 관한 ‘행동강령’이 나온 이후 1985년 당시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앙골라를 방문하였다. 제8차 비동맹 외무장관 회의의 참석이었다.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 열린 비동맹 외무장관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최종 선언을 채택했다. 그중 북한은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를 위한 행동강령에 따라 1986년 하반기에 평양에서 영화축전과 문맹퇴치 및 학령아동취학에서 얻은 경험에 관한 토론회”(로동신문 1985/09/12, 6)를 주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1986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는 ‘제2차 뽀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1983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뽀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상회의’의 선언과 행동강령을 관철하

는데 기본 목적이 있었다(로동신문 1986/04/08, 6). 물론 북한의 목적은 제3세계 비동맹국가 간의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이었다(로동신문 1986/04/08, 6). 회의에서의 합의를 통해 영화제 개최가 잠정 확정되었다. 1986년 9월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평양영화축전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영화제라는 국제 행사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최할 수 없기에 비교적 오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었다. 1981년 11월 북한은 남한에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내준 경험이 있다. 이미 남한은 이에 더해 1981년 9월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8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유치한 상태였다. 북한은 영화제 개최를 확정 지으면서 남한보다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관계에서 형식적이거나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Ⅲ. 평양영화축전의 정치적 의미

1. 비동맹국가 간 친선외교 강화와 북한 영화의 우수성 선전

‘제1차 평양영화축전’의 구호는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하여’이다. 영화제는 제3세계 비동맹국가가 “자주적인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인민적이면서 혁명적인 영화예술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나누어야 하며, 영화 분야에서의 교류, 협조를 강화 발전 시켜야 한다”(로동신문 1987/09/02, 2)고 설명한다. 또한, 영화제가 “친선 단결을 두텁게 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로동신문 1987/09/02, 2)이라고 강조한다. 대외적으로 평양영화축전은 영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국가 간 친선강화가 주요 목적임을 밝혔다.

북한은 영화제 준비를 위해 ‘인민문화궁전’을 주요 장소로 선정하였고, 평양 모란봉에 있는 ‘개신영화관’을 새로 지었다. 각 시내 영화관의 상영시설과 관람시설들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하였다. 개최 40일 전에 영화제 관련 마크와 휘장, 깃발, 탑을 제정하는 문제, 영화의 동시 번역과 선전을 준비하는 문제, 해외 관람객의 편의시설 문제를 완료했다고 선전하였다(로동신문 1987/07/19, 4).

〈그림 1〉 제1차 평양영화축전 관련 포스터



자료: 문예출판사(1990).

영화제 개최 2주 전인 8월 13일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양영화축전조직위원회 서기장인 권혁봉 문화예술부 영화총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제국주의 특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은 영화를 통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를 강화할뿐만 아니라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족영화발전을 억제하며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빨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민족영화예술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나누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다.”(문예출판사 1990, 565)

북한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외적으로는 신생국이 출현하고 있지만, 제국주의 속에서 민족문화 분야가 말살당하고 있으므로 영화제를 통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평양영화축전이 국제영화제이고, 친선외교 강화가 주목적이기에 북한은 고위급 인사들을 참석시켜 손님맞이에 무척 신경을 썼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양영화축전의 개·폐막식에는 정무원 총리 이근모, 축전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정무원 부총리 정준기, 평양시당 책임비서 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강희원,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문화예술부 장철 등이 참석하였다. 대외적으로 첫 번째 영화제인 만큼 격식을 차리는 데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화제 첫날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는 평양영화축전 참가자들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다(로동신문 1987/09/02, 4). 북한의 영화예술인과 해외 참가자들은 ‘상봉야회(밤에 갖는 모임)’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기도 하였다(로동신문 1987/09/06, 4). 적어도 국가 간 ‘친선

〈표 1〉 제1차 평양영화축전 주요 참가국 현황

대륙별	국가(괄호는 출품작 수)	출품작 수
아시아 (9개국)	북한(12), 아프가니스탄(2), 방글라데시(1), 이란(2), 인도(4), 인도네시아(8), 레바논(1), 팔레스타인(1), 베트남(2)	33
아메리카 (6개국)	가이아나(1), 쿠바(6), 니카라과(2), 베네수엘라(1), 페루(2), 멕시코(1)	13
유럽 (3개국)	루마니아(4), 유고슬라비아(13), 키프로스(3)	20
아프리카 (14개국)	알제리(3), 가나(2), 모잠비크(2), 이집트(2), 니제르(1), 리비아(3), 마다가스카르(1), 말리(2), 탄자니아(1), 잠비아(2), 짐바브웨(3), 세네갈(1), 콩고(1), 튀니지(2)	26
오세아니아	-	-
기타	유엔공보부(4)	4
합계	32개국 1기구	96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평양영화축전의 주요 참가국과 출품작 수는 <표 1>과 같다.

참가국을 보면 영화제의 규모와 특징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평양영화축전의 공식적인 참가국은 『로동신문』 보도와 『조선영화년감』 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조선영화년감』 안에서도 ‘기사’로 언급된 부분과 ‘표’로 제시된 부분의 수치가 다르다. 『조선영화년감』에 제시된 ‘표’를 기준으로 주요 참가국을 보면, 아프리카는 14개국, 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6개국, 유럽 3개국 순이다. 대륙별로는 참가국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대륙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 중심으로 영화제가 꾸려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출품작으로는 유고슬라비아(13), 북한(12), 인도(8), 쿠바(6) 루마니아(4) 순이었다.

『조선영화년감』의 ‘기사’를 보면 예술영화 46편, 기록영화 42편, 만화영화 22편이 출품되었고, 그중 예술영화 21편, 기록영화 30편, 만화영화 11편 등 총 62편을 심사하였다(문예출판사 1990, 568). <표 2>, <표 3>에서 보듯 수상할 수 있는 경쟁부문의 작품은 예술영

<표 2> 예술영화 부문 수상작

부문	수상명	작품명	국가명 / 성명
예술영화	《화불》 금상	도라지꽃	북한
	《화불》 은상	파편	리비아
	《화불》 동상	죄없는 사람	이집트
		이것도 과거일로 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금연기상	어머니의 소원	북한
		할아버지	이란 / 잠시드 마사예히
		도라지꽃	북한 / 오미란
	은연기상	파편	리비아 / 티 까바일리
		분노	인도 / 게예파
	문학상	모기장 안에서	인도네시아
	연출상	검은 것	세네갈
	촬영상	치올레 안드라츨	루마니아

화, 단편영화, 만화영화를 합쳐 총 21편이다.

〈표 3〉 단편영화, 만화영화 부문 수상작

부문	수상명	작품명	국가명 / 성명
단편 영화 부문	《해볼》 금상	젊은 심장을 지닌 사람	쿠바
	《해볼》 은상	검은 폐지들	팔레스타인 기록영화
	《해볼》 동상	황금의 이면	니카라과 기록영화
	기술상	개미	유고슬라비아 기록영화
		고요를 깨뜨리는 비꼬	짐바브웨 기록영화
		조선의 사시절	북한 기록영화
만화 영화 부문	《해볼》 금상	도적을 쳐부신 소년	북한
	《해볼》 은상	딸라와 포를 반대하는 엘비디오 발데스	쿠바
	《해볼》 동상	42호 주택	유고슬라비아

<표 4>에서처럼 특별상 부문에서 수상할 수 있는 작품 역시 총 21편이다. 평양영화축전에서 수상할 수 있는 작품의 최대치는 42편인데, 총 62편을 심사하였기에 최소 두 작품 중 한 작품, 최대 세 작품 중 두 작품은 수상의 영예를 얻는다. 이는 애초부터 영화제가 작품을 통한 경쟁보다는 남남 협조의 확대 발전이라는 ‘친선’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4〉 특별상 부문 수상작

부문	작품명	국가명 / 성명
심사위원회 특별상	표범의 시대	모잠비크- 유고슬라비아
축전조직위원 회 특별상	제8차 뿔럭불가담 국가수뇌자회의	짐바브웨
사회단체상 (기타)	문학예술총동맹상, 대외문화연락위원회상, 아세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상, 조선영화인동맹상, 잡지 <조선영화>상, 잡지 <조선문학>상, 잡지 <조선예술>상	19작품 수여

한편,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지도자나 관료들의 말과 글은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설득력이 있다. 평양영화축전이 ‘친선’을 중시하는 영화제라고 하지만 엄연한 경쟁 작품이 있는 영화제이다. 이는 자국의 영화가 어느 수준이고, 외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는 의미이다. 북한 당국의 선전과 해외 소식은 주민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영화 자체의 경쟁력 확보에도 매진⁸⁾하게 한다. 북한은 자국에서 개최하는 영화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북한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 이는 영화제 수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의 면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술영화국제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경우 위원장은 ‘영화인 동맹 부위원장이자 영화작품국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승환이 맡았고, 여덟 명의 심사위원에도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월미도창작단 단장’인 류호손이 포함되었다. ‘단편 및 만화영화 국제심사위원회’에도 ‘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총장’인 이하규가 위원장으로 4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심사에 참여했다. 자국 출신의 심사위원을 여러 명 포함해 북한 작품의 영화제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지금 600여편의 우리 나라 영화들이 세계 5대륙 100여개 나라 영화관들과 텔레비존을 통하여 성황리에 상영되고 있다. (중략) 지난 시기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옮긴 예술영화 《꽃파는처녀》는 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을 쟁취하였으며 《봄날의 눈석이》, 《새별》을 비롯한 많은 예술영화들, 《누에치기에서의 새로운 방법》 등 과학영화들과 기록 영화들은 국제영화축전들에서 특별상과 높은 급의 상, 주상, 특별메달을 받았다.”(로동신문 1987/09/01, 4)

8) 한편, 평양영화축전 개최와 동시에 ‘영화시장’도 동시에 열린다. 이를 통해 참가국 간 영화교류·합작·기술협조 등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영화시장이 활발해진다면 북한 영화가 자본주의 국가와도 자유롭게 영화의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제1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한 영화의 벗들은 축전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영화들과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영화창작의 물질기술적토대에 대하여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축전의 최고상인 《햇불》 금상을 받은 예술영화 《도라지꽃》과 만화영화 《도적을 쳐부신 소년》, 《햇불》 동상을 받은 예술영화 《어머니의 소원》을 비롯하여 많은 영화들이 심사위원들과 축전참가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중략) 영화의 주제사상이 명백하고 연출, 촬영, 배우연기가 매우 훌륭하다. 나는 (레바논 심사위원) 강한 A로 평가한다.”(문예출판사 1990, 531)

북한은 첫 번째 영화제를 통해 예술영화 부문에서는 북한의 <도라지꽃>⁹⁾이 영예의 ‘햇불 금상’을, 영화 <도라지꽃>의 오미란이 ‘금연기상’을 받았다. 만화영화 부문에서는 북한의 <도적을 쳐부신 소년>이 ‘햇불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첫 회부터 <도라지꽃>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되었다.¹⁰⁾ 1987년에 제작된 <도라지꽃>에서 오미란은 주인공 진송림 역을 맡았으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도라지꽃’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도라지꽃>은 ‘향토애와 조국애’라는 주제 의식으로 북한 영화사에서도 의의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전영선 2004b, 435). 오미란은 ‘제2차 평양영화축전’에서도 <생의 흔적>이라는 작품으로 연기상을 받았다. 그리고 1990년 10월 뉴욕에서 열린 제1회 남북영화제에서 최우수 남북영화예술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오미란은 북한 여배우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9) 예술영화 <도라지꽃>의 영화문학은 북한 최고의 영화문학가로 손꼽히는 리춘구가 집필하였으며, 연출은 조경순이, 촬영은 박세웅, 최태국이, 미술은 전일선, 영화음악 작곡은 황진영이 담당하였다. 주인공 진송림역은 오미란이 맡았으며, 김령조, 김일현, 송연옥, 최순규, 리원복, 공영렬 등의 배우가 출연하였다(전영선 2004b, 436).

10) 1987년은 남북영화사에서 주목할 만한 시기였다. 공교롭게도 남한의 강수연은 ‘제1차 평양영화축전’이 진행 중인 1987년 9월 9일 <씨받이>로 제44회 베니스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 했다. 1980년대 초반 남한 영화계는 검열 완화로 예로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영화계는 불황이었다. 1986년부터 경제 호황으로 영화계도 서서히 활기를 되찾지만, 내용 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김윤아 2001).

국제적인 배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은 1987년 당시 영화관, 시군 문화회관, 이동영사대, 도 선전대 문화회관, 각종 영사시설을 통해 영화를 관람해 왔다. 영화는 대내선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¹¹⁾ 그간 변변한 국제 영화제가 존재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만한 작품이 많지 않았다. 일터에 나가면 접할 수 있는 것이 영화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작품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평양영화축전을 계기로 북한의 작품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향이 뛰어난 작품은 홍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만일 북한 영화가 외부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작품의 우수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영화를 통한 선전은 자국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느끼기 때문에 영화제 설립의 효과는 크다.

북한 영화 관객들이 <한 녀학생의 일기>를 관람하고 느낀 특징 중 하나는 김선아(2013)가 지적했듯이 동일화 효과이다. 비교적 잘 만들어진 영화는 마치 내가 그 영화 속 인물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때로는 특정 장면과 배역을 자신의 과거나 미래의 어디쯤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하나는 모방 효과이다. 관객들은 자신들이 따라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에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간 북한 영화는 동일한 시대적 배경과 유사한 주제 의식이 주를 이루었다. 강제 동원이니 흥행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데에는 대체로 실패했다. 국제영화제 개최로 양질의 영화가 제작될 조

11) 북한의 ‘전국영화관람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7년도 한 해 동안 북한에서는 총 670,233회의 영화를 상영했고, 관람자 수는 약 2억 164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북한 인구가 1,934만 6천 명에서 2,068만 5천 명 사이로 추정되기에 1인당 연평균 약 10편의 영화를 봤다는 이야기가 된다.

건이 마련되었다. 결국, 그 조건은 국가의 의도에 부합하게 활용되었지만, 영화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2. 후계자 김정일의 국제적 이미지 구축과 김일성의 위상 제고

(1) 후계자 김정일의 국제적 이미지 구축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예술 장르 가운데 ‘영화’는 사회주의 예술에서 가장 유용한 선전도구이다. “영화는 문학의 소재와 플롯이 담겨 있으며, 음악, 미술과 무용의 요소가 반영된 종합예술”이다(윤영돈 2010). 김정일의 문예이론 연작시리즈(영화예술론, 무용예술론, 음악예술론, 미술론, 건축예술론, 주체문학론) 중 『영화예술론』(1973년)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사실은 영화를 얼마나 중요한 장르로 인식했는지 방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화예술론』은 “김정일이 북한 문화예술계를 직접 통제하던 1970년대에 집필했다는 점, 주체 사상을 기초로 한 주체문예이론을 영화 분야에 먼저 구체화 시켰다는 부분에서 북한 문화예술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책”(전영선 2004a, 307)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영화 그 자체로 보면 국가 권력이 영화 이론서를 제작·배포해 국가의 입맛에 맞게 영화를 제도화, 통제화, 이념화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실제 『영화예술론』이 완성되었다는 1973년은 김정일이 사실상 영화 지도에서 손을 놓은 시기이다. 이렇게 볼 때 『영화예술론』은 현장 경험과 지도를 통해 김정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최종적으로 경전화 한 작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예술론』이 등장하기 이전 혁명전통 영화인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세 편은 이미 완성되었다(김선아 2011, 79).

김정일의 영화 분야 진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다. 1967년 박금

철·이효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정일은 그들의 잔재가 남아있는 문학예술 분야에 자원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한다(정영철 2005, 158-159). 김일성 관련 영화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백두산창작단’이 만들어진 것도 1967년이였다. 영화제작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면서 그의 고민은 영화를 통해 혁명전통을 생산해 내는 일이었다. 일련의 과정은 김정일이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조은희 2007, 44-60).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받기 이전인 1960년대 중반부터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친선을 강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196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동회의 10주년 기념행사에 아버지인 김일성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결정적이었다.

“수령님께서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어 이 나라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극진한 환대를 받으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민들은 우리 수령님을 위하여 환영행사들을 전례없이 성대하게 진행하였으며 참관사업도 성의있게 조직하였습니다. 특히 수도 자카르타로부터 보고르에 이르는 400리 연도에서 있는 환영은 대단하였습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 수령님을 얼마나 높이 존경하며 열렬히 흠모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었습니다.”
(김정일 1992, 91-92)

당시 김일성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수카르노로부터 꽃을 선물 받는다. 오늘날 ‘김일성화’라고 칭하는 꽃이다. ‘김일성화’는 이후 ‘김일성화축전’이라는 축제로 변모한다. 당시 대통령 수카르노가 준 꽃을 북한은 단순한 성의 표시로 느끼지 않았다. 김일성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흠모’에서 나온 선물로 여겼다. 북한은 중국이나 소

련과는 독립적으로 자국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제3세계 비동맹국가에게 막대한 경제적·군사적 자원을 원조했다(권현익·정병호 2013, 205). 그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김일성을 ‘제3세계 민족지도자’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김정일은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감행하며 쌓아왔던 성과를 외부에 드러내기 위해 ‘기록영화’에 신경을 쓴다.

“기록영화를 가지고 대외선전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영화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투쟁모습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감화력과 설득력이 매우 큰 선전수단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를 소개선전하는데서 열번 말하는것보다 우리 나라의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기록영화를 한번 보여주는것이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록영화를 많이 만들어 대외선전에 널리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 1992, 98-99).

1970년대 초 당의 핵심부서인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를 장악한 김정일은 이미 권력 핵심의 실권자가 되었다. 특히, “김일성의 권위와 직접 관련된 문제나 당의 역사적 의의를 부각하는 문제, 김일성의 초상을 도안·작성·제작·교부하는 문제, 김일성 훈장과 선물에 관한 문제 등”(정창현 2007, 343)은 김정일 본인이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960~70년대는 김정일이 북한 내부에서는 실권자였지만 공식적인 후계자 지위를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외관계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1970년대는 내부로부터 혁명전통을 생산해내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포장할 고민을 하는 준비기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

서 비로소 대내외적으로 후계자로 공식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는 후계자로서 자신의 권력기반도 강화하고, 김일성의 주체적 노선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후계체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영화는 김정일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분야였다. 김정일은 1982년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내놓으면서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완전히 독점하였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 후계자로의 본격적인 등장 이후 전반적으로는 김일성의 유일사상과 독점적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과 연관된 영화 창작을 지도하였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10부작 <조선의 별>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혁명투쟁 시기의 모습을 그려낸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후 10부에 나오는 ‘민족의 태양’이라는 말을 모티브로 <민족의 태양>이 제작되었다(이효인 2001). 내부적으로는 1960~70년대부터 후계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었지만, 아직 대외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김정일은 1987년 평양영화축전을 개최하면서 외부 행사를 통해 ‘지도자’라는 선전 효과를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양영화축전에 참가한 외국인의 김정일에 대한 인상기 속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문학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데 대한 사상을 내놓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대중령도의 천재이십니다. 나도 예술가이기때문에 알고있지만 참된 예술의 힘이란 우월한것입니다. 나는 오늘 촬영소를 돌아보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예술의 천재이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환히 들여다보실줄 아는 인간정신의 박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문예출판사 1990, 526)

“나는 지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작 <영화예술론>을 읽고있는 데 보면 볼수록 눈이 띄이는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영화예술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조선의 예술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예사상에 의하여 튼튼히 담보
되어있습니다.”(문예출판사 1990, 527)

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김정일은 예술가로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김정일을 ‘한 나라의 지도자’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도자 김일성과 동등한 실권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외 방문객이 북한 예술의 발전이 김정일에 의해 이루어졌고, 영화 예술 분야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내용은 적어도 김정일을 예술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지도자 이미지로 구축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김일성의 국제적 위상 제고

북한이 제3세계 비동맹국가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6년 4월 개최한 제3차 당 대회에서 다변 외교로 전환방침을 밝힌 때부터이다(김계동 2002, 298).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탈피해 독자 노선을 취하고자 했다.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관계 강화는 김일성이 제3세계 민족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인 접근이었다.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부터 북한이 지원한 막대한 자금도 한몫했다.

강대국에 굴하지 않고 자주 노선을 걷는 제3세계 민족지도자 이미지는 스스로 생산해내기 어렵다. 결국, 1950~60년대 김일성의 외교 정책 흐름과 김정일 자신이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 그 관계 속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제3세계 민족지도자 이미지는 김정일이

1970~80년대에 투영시켜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인간중심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수령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노선 강화는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1980년대 북한은 “정치적으로 김일성 유일체제의 강화와 김정일 후계체제로의 이행이 공식화되는 과도기”(조지훈 2007, 243)였다. 이러한 과도기의 정점에 제3세계 비동맹국 중심의 평양영화축전을 개최한 것이다.

평양영화축전은 김일성이 제3세계 민족지도자임을 2년마다 공식적,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평양영화축전은 김일성이 제3세계 비동맹국가로부터 추앙받고 있음을 내부 선전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행사이다. 평양영화축전 참가자 일동은 영화제가 마무리되면서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예를 다하였다.

“우리는 주석각하의 깊은 관심속에서 제1차 평양영화축전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양을 축전 장소로 제공하여주시고 원만한 축전시설들을 보장하여주시었으며 우리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 충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로동신문 1987/09/15, 1)

일반적으로 영화제는 문화적 측면에서 관객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여러 국가와 장르의 영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영화를 통한 상호 교류 및 비즈니스(business)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영화 예술과 산업의 발전, 문화의 다양성 증진 등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박조원·남유나 2012, 16). 1980년대 당시 북한은 지도자와 후계자가 병존해서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후계자는 지도자의 개인숭배 차원에서 영화제를 활용했다. 또한, 후계자 자신은 1960년대부터 문학예술 분야, 특히 영화에 관심

과 지도 경험이 누적되어 있었다. 이렇게 쌓인 경험은 ‘영화제’를 통해 최종 발현되었다. 결과적으로 ‘영화제’는 지도자와 후계자의 통치 방식을 선전하는 장(場)으로서 기능했다. 후계자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 온화한 인물이면서,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겸비하는 존재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재능있는 창작력량과 함께 현대적인 촬영설비, 영화기술기재들을 그쁘히 갖춘 예술영화촬영소, 기록영화촬영소, 과학교육영화촬영소 등이 훌륭히 마련되어있다. (중략)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예술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적 문학예술건설에서 영화예술을 언제나 중심고리로 내세우시고 그 개화발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주셨다. (중략) 우리나라 영화예술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주체의 영화예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고 있다.”(로동신문 1987/09/01, 4)

김일성이 국제적으로 민족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사례는 평양영화축전 참가자들의 평양 방문 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난다.¹²⁾ 영화제 참가자들은 방북 후 이튿날부터 영화제와 무관하게 평양을 중심으로 곳곳을 방문하게 된다. 방북자들이 거쳐야 할 하나의 통과례였다(문예출판사 1990, 571-581). 첫날 오전에는 ‘대성산혁명렬사릉’, ‘개선문’, ‘주체사상탑’을 방문한다. ‘대성산혁명렬사릉’

12) 북한은 평양을 ‘사회주의 이상도시’이자 ‘혁명의 수도’로 단장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였다. 영화축전의 ‘평양’ 개최는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평양에는 1970년대까지 5층짜리 연립아파트와 10여 층짜리 아파트가 주를 이뤘지만 1980년대부터는 20~4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1980년대 초에는 문수거리에 1만7000세대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섰고 창광거리, 버드나무거리, 안상택거리, 천리마거리, 광복거리에는 20층, 25층, 3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다(<http://kor.theasian.asia/archives/127535>).

은 건국의 주역인 혁명 1세대가 안치된 곳이다. 그곳 가장 높은 곳에는 김일성의 아내이자 후계자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의 묘가 있다. 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참가자들 이름의 화환을 올려놓고, 김정숙의 동상에는 꽃을 올려놓는다. 김정숙 동상에 꽃을 올려놓는 것은 김일성을 마지막까지 보필했던 김정숙을 존경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며, 김정일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예를 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사로부터 청취한다.

다음, 참가자들은 ‘개신문’을 참관한다. 개신문은 김일성이 해방 후 북한을 개선했을 때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참가자들은 ‘개신문’의 의의 역시 해설사에게서 듣는다. 첫날 일정의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주체사상탑’을 참관한다. 주체사상탑은 주체사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둘째 날 오전에는 ‘만경대’를 방문한다. 참가자들은 김일성 일가의 역사에 대해 해설을 듣고, 기념사진을 촬영한다. 기념사진은 첫날에는 ‘주체사상탑’에서, 둘째 날은 ‘만경대’에서 평양시 전경을 보며 찍는다. 두 곳 다 김일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장소이다. 오후에는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셋째 날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방문하는 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촬영소 구내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참가자들의 이름이 들어간 꽃바구니를 증정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지도를 받으며 발전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연혁에 대해 듣는다.

넷째 날에는 묘향산으로 이동해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다. 이곳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선물했다는 다양한 물품들이 있다. 북한의 지도자가 세

계적으로도 권위 있고, 위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방문 장소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과 ‘서해갑문’을 방문한다. 이러한 의례는 지도자의 위상 제고와 통치 방식을 선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표 5〉 제1차 평양영화축전 참가단 북한 의례 일정

차수	오전/오후	방문지	비고
1일차	오전	대성산혁명렬사릉	故김정숙 꽃다발 전달/항일혁명투사 활동 해설 경청
		개선문	김일성의 개선 해설 경청
		주체사상탑	기념촬영
2일차	오전	만경대	김일성의 가정사 해설 경청/기념촬영
	오후	만수대예술극장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
3일차	오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김일성 동상에 꽃다발 전달
4일차	오전	국제친선전람관, 묘향산	열차 이동
5일차	오후	평양학생소년궁전	-
6일차	오후	서해갑문	-

평양영화축전 참가단의 의례 일정을 통해 북한은 혁명의 수도이자 사회주의 국가의 이상 도시인 ‘평양’에 대한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는 김일성 가계와 그와 관련한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그가 살아온 내력이 북한 민족 내지 한민족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민족지도자로서 김일성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북한은 1987년 이후 ‘평양영화축전’을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1987년 제1회 축전 2년 후인 1989년에 북한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면서 영화제는 1년 순연되었다. 제2차 축전은 1990년에 열렸다. 이후 평양영화축전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체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북한 당국을 긴장시켰다(정영권 2015, 42). 오히려 이 시기에도 영화제를 지속한 것은 국가에 대한 견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해에도, 1996년 고난의 행군기에도 영화제는 계속될 만큼 비중이 높았다. 큰 틀에서는 평양영화축전의 출발이 제3세계 비동맹국가와의 친선 도모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만큼 행사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었다. 다만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평양영화축전은 ‘지도자에 대한 추모제’라는 요소를 곳곳에 반영하였다. 동시에 지도자 김정일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6년에는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면서, 영화제 개최를 통해 북한 체제의 견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 영화제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는 ‘뽀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에서 ‘평양국제영화축전’으로 대명명을 변경하였다.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보다는 국제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2012년과 2014년에도 평양국제영화축전이 개최되었다.¹³⁾ 2014년 제14회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는 이례적으로 홈페이지를 운

영¹⁴⁾하여, 관광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출품된 주요 영화목록은 책자로 발간하였다(평양국제영화축전조직위원회 2014).

북한이 제1차 평양영화축전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은 제3세계 비동맹국가의 세력화이다. 이들의 등장이 북한에는 외교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당시 남한의 비동맹 외교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외교전을 벌여야 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가 되면서 김정일로서는 자신의 후계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제1차 평양영화축전은 1960~70년대 영화 사업을 지도했던 김정일 자신이 공식 후계자로서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시험 무대가 되었다. 방법적으로는 자신을 예술적이면서 국제적인 지도자로 위치시키고, 김일성은 제3세계 민족 지도자로 추켜세웠다. 1987년만 국한해 보면 대체로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진행된 영화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평양영화축전의 성립 배경과 대내외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면에서 연구를 제약하는 조건이 존재했다. 무엇보다 평양영화축전에 참가한 방문객과 북한 주민의 반응을 직접 알기 어렵고, 문헌 수집이 제한적이라 자료에 대한 풍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이런 점들을 꾸준히 보완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투 고 일: 2015년 07월 01일

심 사 완 료 일: 2015년 08월 21일

게 재 확 정 일: 2015년 08월 21일

13) 2014년에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을 개최하였다.

14) 평양국제영화축전. <http://pyongyanginternationalfilmfestival.com/> (검색일: 2015.6.14).

참고문헌

1. 국문

- 권헌익·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파주: 창비.
- 김계동. 2002. 『북한의 외교정책: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 서울: 백산서당.
- 김선아. 2011. “영화국가 만들기: 『영화예술론』을 통해 본 사회주의 영화 미학에 대한 고찰.”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주체의 환영: 북한 문예이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 pp. 71-106. 광명: 도서출판 경진.
- _____. 2013. “<한 녀학생의 일기>를 통해 본 북한영화 관객성 연구.”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 『선전과 교양: 북한의 문예교육』. pp. 191-220. 광명: 도서출판 경진.
- 김윤아. 2001. “80년대 한국 영화의 장르 추세 연구.” 『영화연구』 17: 184-220.
- 김일성. 1981.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7년 12월 5일).” 『김일성저작집 11』. pp. 391-4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1992. “신흥세력나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자: 대외사업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1965년 5월 9일).” 『김정일선집 1』. pp. 91-10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로동신문. 1983. “제7차 뽐력불가담 국가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정치선언과 경제선언.” (3월 16일).
- _____. 1983. “사설: 뽐력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부장회의를 열렬히 축하한다.” (9월 24일).
- _____. 1983. “제1차 뽐력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및 문

- 화부장회의 평양에서 개막: 72개 나라와 투쟁단체, 19개 국제기구에서 온 91개의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참가.” (9월 25일).
- _____. 1983. “교육문화 분야에서 뽐낼볼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 사이의 협조를 위한 행동강령.” (9월 29일).
- _____. 1985. “조선인민의 조국통일 위업을 적극 지지: 뽐낼볼가담 국가 외무상회의에서 최종선언 채택,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제의들을 열렬히 환영.” (9월 12일).
- _____. 1986. “뽐낼볼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영화축전과 문맹 퇴치 및 학령아동취학률제고에 관한 토론회를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기로 합의: 올림픽 공동주최 안을 확고히 지지: 제2차 뽐낼볼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교육 및 문화상 회의에서.” (4월 8일).
- _____. 1987.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평양영화축전.” (7월 19일).
- _____. 1987. “성황리에 진행될 평양영화축전.” (9월 1일).
- _____. 1987. “제1차 뽐낼볼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 개막.” (9월 2일).
- _____. 1987. “제1차 뽐낼볼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 성황리에 진행: 우리나라 영화 예술인들과 영화축전 참가자들의 상봉야회.” (9월 6일).
- _____. 19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각하께 드리는 감사편지.” (9월 15일).
- 문예출판사. 1990. 『조선영화년감(1988)』. 평양: 문예출판사.
- 박명진. 1990. “북한 영화의 특성과 그 실태.” 『북한 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pp. 359-412.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박조원·남유나. 2012. “우리나라 국제영화제 방문객의 특성 비교 연구.” 『문화경제연구』 15(1): 115-141.
- 외교부. 2014. 『2014 외교백서: DIPLOMATIC WHITE PAPER』. 서울: 외교부.
- 윤영돈. 2010. 『다문화시대 도덕교육의 프리즘과 스펙트럼』. 파주: 이담북스.

- 이기중. 1997. “북한의 대 제3세계 비동맹 외교정책.” 『고향정치학회보』 1(1): 187-208.
- 이효인. 2001. “북한의 수령 형상 창조 영화 연구: 연작 <조선의 별>과 연작 <민족의 태양>의 신화 형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영선. 2004a. 『북한의 문학과 예술』. 서울: 도서출판 역락.
- _____. 2004b. 『북한을 움직이는 문학 예술인들』.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정규섭. 1997.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 정영권. 2015.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청년 과학자와 ‘청년 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1): 33-66.
- 정영철. 2005.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서울: 선인.
- 정진욱. 2014. “전주국제영화제 특성화 방안 연구: 네트워크이론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창현. 2007. 『CEO of DPRK 김정일』. 서울: 중앙북스(주).
- 조은희. 2007. “북한 혁명전통의 상징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지훈. 2007. “전환기의 1980년대 남북한 영화(1980~1991).” 정태수 편. 『남북한 영화사 비교연구(1945~2006)』. pp. 237-314. 서울: 국학자료원.
- 통일부. 2003.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 평양국제영화축전조직위원회. 2014.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영화목록)』. 평양: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조직위원회
- 황병덕·김수암·김영운·김영준·박종철·배공찬·배정호·손기웅·여인곤·윤성이·이금순·정현수·최춘흠. 2003.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 인터넷 자료

씨네21.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2549(검색일:
2015.8.14).

The AsiaN(아시아엔). <http://kor.theasian.asia/archives/127535>(검색일:
2015.8.15).

평양국제영화축전. <http://pyongyanginternationalfilmfestival.com>(검색일:
2015.6.14).

Abstract

A Study on 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Its Political Meaning

HAN, Seung Dae

Dept. of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Jeon, Young Sun

The Institute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ersity

Kim, Yong Hyun

Dept. of North Korean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the D.P.R.K(PIFF) and its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meaning historically. The event originated in 1987 as the PIFF of the non-aligned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which means that as the name precisely delineated, the goal of the PIFF was cultural exchange and to reinforce th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of Non-Aligned Movement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familiar with North Korea. The film festival returned in 1990 and would be regularly held every other year.

North Korea had internationally tried to establish Kim Jong-il's high

leadership as a political heir of Kim Il-sung, founder of North Korea, through the PIFF. Kim Jong-il regarded Kim Il-sung's anti-Japanese guerrilla activities as his regime legitimacy and politically exploited culture and arts. In particular, movie played a pivotal role in advertizing his regime legitimacy. For these reasons, the PIFF have been the most useful tool to show off his political power and achievements.

Keywords: North Korea, 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ird World, Non-aligned Nations, Kim Il-sung, Kim Jong-il